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레위기 19:15-18, 고린도전서 9:19-27

정윤돈 목사님

사람들은 보통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고, 만사가 편해지고,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그런 기대했던 응답이 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커지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큰 컴퓨터회사가 망한 이유를 들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커져서 망했다는 것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 것이 부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오히려 힘들어진다. 우리교회가 크지 않은 빛이 있다. 물론 여러분은 빨리 헌당했으면 좋겠다 할 텐데, 나는 계속 빛을 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처음 대학원 때 교회에 갔을 때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다. 헌금이 다 저축이 되니까 몇 백억 원이 되어야.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교회에 돈이 남아서 싸운 것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었는가? 없을 때, 반지하에 있을 때, 빛 많을 때 하나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그것이 독이 된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면서 빛을 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행복하겠는가? 아니다. 빛을 물려주어야 한다. (웃음) 돈을 물려주면 아무리 공평하게 해도 공정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평생 섭섭해하게 된다.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 RUTC에 기부해라. 자녀를 살리려면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빛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욕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된다. (웃음)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지 마라.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되면 응답이 줄 아는데, 천 명 많아질 때마다 문제가 두 배로 생기더라고 한다. 반지하 개척교회일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 한다. 부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부흥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위낙 가난한 청소년들과 살았기 때문에, 제발 부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없지만, 그런 기도제목은 잡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제발 겸손했으면 좋겠다. 별 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이 저주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친하보다 소중한 존재 아닌가. 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응답, 이런 자세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서론 :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

약 2천 년 전 고린도교회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응답받아 세운 교회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 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꾸지람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답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다. 삶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 너무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지역의 우상숭배, 나쁜 각인, 뿌리, 체질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다. 경영으로 세우는 곳도 아니다. 학교와도 다르다.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짧은 시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고린도 자체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다.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타락 문화가 있었다. 성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중직자, 장로들이 뽐힐 수록 목사님을 간섭한다고 해 보자. 중직자가 많아지면 상전이 많아지는 셈이 되어 버리던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목회에 간섭하고 무엇을 따지는 게 중직자의 역할이 아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가치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의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고린도교회가 그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멋진 중직자, 램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란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처럼 부흥이 안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다. "장로님은 왜 아직 삼성 같은 기업

을 못 만들었어요?" 능력 안 나타나고 부흥 안 되어서 반지하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나는 많이 만났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다. 선교가 안 되고 자녀 학비도 못 주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행복하다. 한국 나오면 있을 곳이 없어서 찢질방에서 주무신다.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를 왜 하느냐 물어보면, 웃으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런다. 누가 성공자인가. 그래서 바울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교회를 향해 심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 마음가짐이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달음질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되지만,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된다. 1등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1.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사도바울의 답변

(1) 첫 번째 문제는, 편당을 나누어서 분쟁하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12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개척자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말이 아닐했다. 설교를 잘 못 했다. 글에는 뛰어났는데 말은 그랬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젊은 사람이 왔는데 너무 말을 잘 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탐사역을 해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낸 것이다.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이 최고다, 원조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한다' 하면서 분열되어 버렸다. 바울은 답을 보낸다. 고린도전서 1:13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 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란다. 정말 오직 예수 했으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포용하고,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속을 추구하고, 편당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시기 바란다. 복음에 결론 났다고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싸우면서 당신이 마귀다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냐? 교회에서 그 따위로 가르쳤느냐 할 것 아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2)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면서, 헬라 철학에 비해 복음이 무식하고 단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해 보라. 고린도 바로 옆이 아텐, 곧 아테네다. 학문이 굉장히 깊다. 설교를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메시지를 하는데,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야기를 한다. 깊이가 있어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표현도 유려하다. 그런데 복음 메시지는 단순해 보인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깊이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엄청나게 심오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다. 이보다 더 깊은 지식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3) 고린도 시의 잘못된 음행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기 때문이다.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경제적으로 번창한 국제 도시였다. 거기에는 아프로디테의 대형 신전이 있었다. 사랑과 미와 생식기의 여신으로 경배되었다. 거기에는 천 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어서 창기 노릇을 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고린도전서 5:1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첩이나 계모를 취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재산이 부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 첩과 결혼해서 재산을 이어받는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4)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차리 다툼, 이런 다툼을 두고 세상 법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울은 꾸짖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전도를 막으면 되겠는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7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법정 다툼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차리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리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서 주장할 게 뭐가 있는가. 봉사하고 양보하

는 것이다. 세상일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다.

(5) 음행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까지도 반대하는 지나친 금욕주의의 문제도 있었다. 고린도전서 7:7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한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 사나귀 편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6) 지적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나빠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뭘 지적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적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 권을 부인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2에는, 바울이 피치 못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교회라면 또 몰라도, 고린도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을 한 교회 아닌가.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우고 안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편당을 만드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들겠느냐.’ 그런 의미다.

(7) 성찬 예식의 문제다. 부자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자들은 성찬을 못하는 일이 생겼다.

(8) 우상 제물을 먹는 사건이 생겼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본 것이다. 바울은, ‘너희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망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면하고 있다(고전8:11). 무슨 지식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 술, 담배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련에만 들어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더 많은 영혼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8:9에,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구역예배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봉사위원 해야 하는 줄도 다 알지만, 오래 되지 못한 분들은 한꺼번에 그런 봉사 이야기 다 들으면 부담스럽게 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것이 복음 있는 교회다.

(9)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 한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다. 가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에서는 개 빼놓고는 방언을 다 받는다’ 하시더라. (웃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방언이 더 크다, 예언이 더 큰 은사다 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7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받은 은사에 따라 적절하고 겸손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다’ 해야지,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다’ 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40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0)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 중에서는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상 지식,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생각이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 주었다. 그 증거가 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지 않았다.

2.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

이제는 함께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 이 언약의 말씀이 후대에 전달되고,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까지 된다면,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전도자들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면서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한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1) 고린도전서 1:10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원니스의 축복이다. 의견도 지식도 주장도 환경도 체질도 다 다른데,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2) 고린도전서 1:18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실책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예컨대 통일교는 예수님이 실책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야가 왔는데 그게 문선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실책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장소가 십자가인 것이다. 그 십자가의 도를 세상은 미련하게 보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고린도전서 1:21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방법 같다. 그러나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 현장 가서 전도하고 설득하고 캠프 나가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유일한 일이다. 전교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흐름을 타야 한다.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4) 고린도전서 9:19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9:20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훈련을 받고 결론이 났지만, 어디 가서 전도할 때는 ‘못 깨달았네’ 하고 말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한다.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깨달았다 하면 전도를 막게 된다.

(5) 고린도전서 9:24-25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 그리스도 결론났어도, 우리는 그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계속 도전해 가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 가진 우리는 율법이 아니다.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후대를 7가지로 훈련시키고, 우리는 다섯 가지로 기도하며, 어디를 가든지 9가지로 삼기도 도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났으면 이런 부분을 다듬으라는 것이다.

(6) 고린도전서 10:24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31에,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33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7) 고린도전서 13:13에,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 보라.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은사를 자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시기 바란다.

결론 : 갈등 속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 자녀의 절대적 기준

갈등과 문제가 계속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겠는가?

(1) 사도행전 1:1이다. 조금이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이다.

(2) 사도행전 1:3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성이다.

(3) 사도행전 1:8이다. 궁극적으로는, 집중기도를 하면서, 많은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절대성이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고집도 세고, 무능하며, 깨달은 바도 적고, 결단을 할지라도 지속할 수 있는 체질도 못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제자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숙되어서, 지역 민족 나라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